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타 Q&A

기타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 조치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다중 시설 등의 경우의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함.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 방법에 따라 다름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함.
- 다만,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소독 후 안전 여부

- 확진 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함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의 감염병 예방수칙 필히 준수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 권고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고 있음.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마취통증의학과] 등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중국산 김치 먹었을때 코로나19에 감염 위험 여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
-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서 7-3판 Q&A 게시판
(2020.03.15)**